

"친구사이"는 보다 건전한 동성애 문화를 위한 남성들의 모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에이즈 예방 및 퇴치운동 (에이즈 예방단체와 협력)
- 동성애자 인권보호
- 동성애로 인한 고민상담
- 친목도모
- 문화행사 및 소식지 발간
- 기타

주소: 10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전화: (02) 3141-7942

# 친구사이

## 소식지 제6호

- "친구사이" 새 임원진 선출, 드디어 사무실 마련
- 동성 결혼시대 과연 올 것인가?
- 에이즈 - 국내 확산기에 들어섰다.
- 국제 에이즈 회의를 마치고
- 동성애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 학술연구: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영향

###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모임

## 새 임원진 선출하고 사무실 마련 친구사이 이모저모

1994년 9월 10일 친구사이가 드디어 작고 아담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10평정도의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분을 위한 자리는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마련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실은 연남동에 있으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과 함께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02) 3141-7942로 국번이 바뀌었습니다.

8월 총회(8월 27일)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이후명 회장님, 표진명 부회장님에 감사드리고 새로 이삼민 회장님, 오준수 부회장님, 각 부장으로 선출된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9월 총회(9월 24일)는 사무실에서 각 부서별 업무 발표와 회원신청

서 작성 등의 업무와 함께 간단한 오프닝 파티를 겸하여 열렸습니다.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로 다소 불편함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구사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달성을 위해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 사업부, 회원관리부, 편집부로 나누었습니다. 각 부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2일 친구사이에서는 새로 가입하신 많은 회원여러분의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40명 남짓한 분들이 참여해서 다음날 온몸이 쭈시도록 여러가지 레크리에이션과 구기를 정열적으로 즐겼습니다. 앞으로 매달 이런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다음달에는 영화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친구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평소 본 모임에 건의하고 싶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느끼신 것을 사서함이나 전화를 통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 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회인가,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인가?



## 동성결혼 시대 과연 올 것인가

### 이번 게이행진서 1천 5백쌍 식 올려

결혼이란? 첫째, 남편과 아내로서 결합하는 것, 즉 결혼을 매개로 동일체가 되는 것. 둘째, 한 남자가 남편으로서 한 여자와 결합하는 것, 또는 한 여자가 아내로서 한 남자와 결합하는 것.

〈결혼〉하면 연상되는 것은 이렇듯 남자와 여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결혼의 의미도 바뀌고 있다. 1967년 美 연방 대법원이 인종간 결혼금지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기까지 미국의 많은 卍들은 결혼을 〈같은 종족 간의 결합〉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란 신랑과 신부로 구성된다〉는 개념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젠 그런 진리조차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일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권리 혁명의 마지막 미개척분야일지도 모르는 동성애자간 결혼의 법적 보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동성애자 사이에 찬반양론을 일으키고 보수주의자들을 경악케하며 진보적인 사람들조차 움츠러 들게 하는 발상이다.

완전히 동성결혼 허용 시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까이에 온 것 같다. 지난 달 뉴욕에서 있는 대규모 동성애자 시위행진에서는 1천5백쌍의 동성애 커플들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목사의 주재로 축복의 꽃가루 세례를 받으면서 말이다. 그 결혼 서약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뜻은 분명했다. <우리 부모는 결혼 30년째고 패트릭의 부모도 비슷하다. 우리도 부모들처럼 오래 오래 같이 살려고 한다.> 2년 전 동성 애인 패트릭과의 결혼허가 신청이 거부되자 〈동성애자 결혼권리

이제 그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다. 얼마 전 하와이주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금지가 卍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 된 것이다.

동성애자간 결혼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회적 또는 종교적 장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낙태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찬반의 감정이 양립하며 혼란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시선은 많이 진보적으로 바뀌었지만 최근 워싱턴 포스트紙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0%가 동성간 결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 관계에 반대하는 사람은 53%뿐이었다. 보수적인 기독교도들은 동성간 결혼에 대한 반대이사를 분명히 한다. 결혼이 자손을 낳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는 동성간 결혼이라는 반대자연적인 것이다. 창조론을 인용할 것도 없이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결혼이란 본질적으로 이성간의 일이라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다. 〈여러 사회가 이성간 결혼을 보호하는 주된 이유는 이성간 결혼만이 영속적으로 부모-자식간의 가족 단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동성간 결혼은 그 장점이 무엇인든 이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미국 가치관 연구소의 데이빗 블랭크론은 말한다.

동성애자들이 모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결혼이란 것을 불미스런 과거를 가진 이성애자들의 제도로 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영합하길 원치 않는다〉고 〈性과 法〉(Sexuality and the Law)의 저자인 뉴욕 법대 교수 아서 레너드는 말한다. 그러나 에이즈의 만연은 그들의 재고를 촉구했다. 동성애자들은 결혼한 커플이 당연히 누리는 질병과 건강에 관한 보호장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의료 보험 혜택, 사별 휴가 및 유산상속권이

원들의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상관없이) 특정한 배우자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 조례를 갖고 있다. 비록 동성애자들이 그러한 법령을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나 많은 동성애 운동가들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믿는다. 〈동거 권리권이란 좋은 나쁜든 2등 시민권〉이라고 현재 군대내 동성애자를 위한 로비에 앞장서고 있는 변호사 토머스 B.스토다드는 말한다.

그리고 좋은 나쁜든 그것은 결혼이 상징하는 호소력을 결여하고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문화 속에서 자란다. 가정을 꾸미고 정착할 때는 그들도 금반지와 법적 문서를 원하며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고 게이 역사학자 에릭 마쿠스는 말한다. 게이들의 난잡한 성생활을 비난해 온 사회가 오히려 그런 신념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동성애 여성들의 친구 모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15 - 217 - 4179 발신자 전화번호 + \* 79 전화성



### 사회인문학적인 연구의 기대 - 국제 에이즈회의를 마치고 -

올 8월 7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요코하마에서 실시된 제 10회 국제에이즈회의를 뒤돌아보면 회의의 진행전체가 놀랄만큼 부드럽게 진행된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한다. 나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1989년에 실시된 제5회 국제 에이즈회의에 참가한 이후부터 샌프란시스코, 피렌체, 암스테르담, 베를린 등 매년 실시된 국제 에이즈 회의에 참석해왔다.

국제 에이즈회의는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학회가 아니다. 전문가 연구자들과 같이 의료 종사자나 행정의 일인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감염환자, 그들을 도와줄 단체들을 포함하는 극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그중에서도 에이즈활동가들은 환자감염자의 불만과 분노를 확실히 대변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명확히 전술을 바꿨다. 내가 아는 바로는 활동가들이 협조형 사회 일본에서 항쟁형의 자기제시를 실시하면 일본의 환자 감염자를 거꾸로 더욱더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회나 문화의 차이에 대응하여 행동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사회나 문화의 문제에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활동가들 뿐이 아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즈의 유행이라는 사회현상을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사회-경제-문화라는 보다더 인간적인 면에 치중해 다시 보자는 움직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

양식, 거주지역, 종교, 인종 등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틀리다. 당연한 일이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성도 틀리다고 생각된다.

에이즈의 유행이란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이즈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때문에 계층화된 각 부분에 가장 적당한 접근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WHO의 어떤 사람은 이 계층화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적 규범, 행동형태, 습관이야말로 에이즈의 유행을 푸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위험한 성행위나 마약같은 위험성이 많은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적절하게 실시한다면 이 세기말까지 에이즈균 감염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WHO는 추측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이나 매춘부 사이에서 동료끼리의 상호 개입방식이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에이즈 감염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성병감염자도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들은 개발적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나라나 지역의 상황을 더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빈곤, 정치적 불안정, 전쟁이나 내란 등의 요인이 심할 때 사회의 에이즈 확산은 증가하게 된다. 사회, 인문, 교육학적인 에이즈 연구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과학적 연구에서 돌파구적인 발견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년 열리는 국제 에이즈 회의는 전 세계에서 모인, 병과 싸우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환자와 감염자들에게 큰 위로의 장소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더욱

더 빛을 낼 때이다.

이런 국제 에이즈회의가 앞으로 2년에 한번 열리게 된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상의 글은 일본 동성애관련지의 일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 Health Call

안녕하세요. Health Call 입니다. 저명하신 의학교수님과 의학부생이 매주 14시간씩 여러분의 건강 및 심리적인 고민에 대하여 상담해드립니다.

10월말 개통 예정인 Health Call 은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에게 언제든지 상담 치료해 드릴 것입니다.

도움을 주실 의사, 의학부생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출번호) 012-223-3340

친구사이  
건강  
3141-7942

## AIDS

# 에이즈-국내 확산기 들어섰다

"암도 좋고 뼈다귀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병도 괜찮다. 에이즈가 아닌 다른 병으로 죽을 수만 있다면 다 축복이고 감사함이다."

10여년동안 동성연애자로 생활하다 2년 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항체 양성반응자로 판명된 김경민(가명·31)씨가 죽음보다 더한 절망의 심정을 담아 펴낸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수기의 한 대목이다. 지난 해에는 수술 도중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정아무개(당시 62살)씨가 절망 끝에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에이즈를 옮긴 뒤 다시 부인의 자살을 도와주고 자신도 끝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 85년 이래 해마다 증가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리우며 100%숨지는 무서운 병으로 이번 세기 안에는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에이즈.

이 에이즈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과 함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5년 국내에서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달까지 발견된 감염자 수는 모두 3백 69명(남자 3백 28명, 여자 41명)이다. 이 가운데 49명이 숨지고 1명이 이민을 가 현재 3백 19명(환자 2명 포함)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연도별 발생추이



를 보면 85년부터 87년까지 3년 동안 14명이 발견된 데 불과했으나 88년 22명으로 늘어난 뒤 89년 37명, 90년 54명, 91년 42명, 92년 76명, 93년 78명이 발견됐으며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6명이 새로 감염자로 밝혀지는 등 해가 갈수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지난 92년부터는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과의 성접촉으로 인한 것보다 내국인과의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2배에 이르러 본격 국내 확산기에 접어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중 동성애자는 모두 70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즈 검진을 꺼리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수는 보사부 통계보다 최소 10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국가관리방식이 에이즈 확산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장기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는 등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에이즈 감염자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는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쿠바를 제외하곤 한국이 거의 유일하며 국가관리의 경직성 등으로 감염자들의 관리기피,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 일반인들의 인식 왜곡 등의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지만 감염된 혈액과 정액만 차단하면 예방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안전한 성관계만 가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에이즈 감염자를 일반 질환자로 받아들이는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에이즈 환자 수가 지난 1년동안 2백 50만명에서 4백만명으로 60%나 증가했고 바이러스 보균자는 1천 7백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특히 에이즈는 타이 등 아시아지역에서 급속하게 퍼져가는 추세에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 10회 국제에이즈대회가 지난 7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에이즈와 아시아, 에이즈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민간단체 등 각 부문의 공동노력이 시급히 모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에이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현 상황을 생각할 때 서로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건전한 성생활의 정착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술연구

# 동성애?

## Part 2

### 3. 미 동성연애자들, 정치적 입김 세졌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오랜 토의 끝에 3주 인권법을 개정해 '성행위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남녀 동성애자와 양성행위자들도 유색인종·여성·장애자와 함께 거주·고용·사회보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2년전 바로 그 일리노이 하원은 그 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했다.

이번엔 60대 49로 쉽게 통과됐고, 가장 낙관적인 동성애 권리 운동가들마저 그 표처에 놀랐다. 이번 승리는 워싱턴의 대형 미디어의 홍보작전 성과에 못지않게 게이 집단이 정치세력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리노이에서의 설득 노력은 성문제를 배제하고 공정성과 약자 지원을 강조하는 소박하고도 온건한 내용이었다. 동성애 권리 단체들은 노조·종교지도자들과 공동 전선을 폈다. 비대한 노조 위원장들이 말씨가 부드러운 남녀 성직자들과 함께 의사당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동성애 세력은 번개 같은 속도로 전통의 흐름 속에 뛰어 들고 있다. 워싱턴 대행진은 지난날 힘없는 다수의 모임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특히 63

년 마틴 루터 킹 2세가 이끈 워싱턴 대행진의 전례를 연상시키는 전술이었다. 게이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90년대의 검둥이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길거리가 아니라 권력의 현장에서 결말이 난다. 뉴욕·시카고·아틀랜타·샌프란시스코와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스프링필드와 워싱턴에서도 동성애자들은 강력하고도 노련한 수완을 발휘하는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벌써 몇년 전부터 동성애자 집단이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게 절박한 위기 의식을 안겨줬고, 새로운 조직과 정상적인 기금 모집망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에이즈를 행동의 목표로 채택한 진보파는 동성애자 권리를 앞장서 옹호하는데 이제 별로 장애가 없다. 미국 사회에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민주·공화 양당에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워싱턴 정계의 선두에 서서 91년 새로운 연방 보호조치를 지지했다.

남녀 동성애자들이 미국 사회가 줄곧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계의 보수파는 조직 활동의 중심 과제를 게이 활동을 반대하는 데 두고 있다.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작년 11월 시민이 발의한 동성애자 권리보호 조례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권력의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8개 주와 1백35개 이상의 지방 행정기관이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10여개 주가 현재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 初選 상원의원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이 대도시 동성애 단체의 공개적인 영향력과 자금 지원에 힘입어 당선됐다. 실상 남녀 동성애자들

은 미국 어디서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핵심적인 신규 자금원이 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선거인 다수가 많은 뉴욕, 일리노이, 특히 캘리포니아 등 비중이 큰 주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훨씬 커진다. 그렇다고 게이 지도자들이 떠돌고 나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워싱턴 행진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존중해 달라는 호소임과 동시에 승리의 축제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46명이다.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수십년 동안의 게이해방운동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향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사회도 우리를 인정해 주리라 믿는다.

## 소설

소설소개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작품

### 어느 소년의 고백

이 소설 '어린 소년의 고백'은 이반인 주인공 엘리엇이 어린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그려나간 성장소설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아버지가 정서적인 동일체 모델을 찾지 못한 아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끊임없는 도움이 필요한 남성성의 획득이 아버지의 회피때문에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게 되는가를 엿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작가 자신의 자서전일지도 모를 이 소설은 미국의 작가 에드문드 화이트(Edmund White)가 1982년에 썼고 우리나라엔 1993년에 열음사에서 출판되었다.



### 독자의 난

독자의 난은 친구사이 소식지의 독자분들을 위한 토론의 장입니다. 평소 사회나 친구사이에 바라는 점, 혹은 고쳐야 되겠다고 느끼신 점 등을 보내주세요.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1994년 8월 13일 한국일보의 독자란에 실린 어느 독자의 글입니다.)

유 부장의 기사 중 기사에서 언급한 말대로 AIDS에 대한 '터무니없는 무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사에서는 '불결한 성교·난교'와 '동성애'를 구분하고 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이성간의 성접촉은 '불결하고 난잡한 경우'에만 AIDS의 위험이 있고 동성애는 그 양상이 어떠한 무조건 AIDS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무지에서 비롯된 언급을 하고 있다. 이성애든 동성애든 불결하고 난잡한 경우 AIDS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이기에, 건전하게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까지 이 범주에 넣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 이 기사에서는 동성애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성애자가 마약사범인가? 최근 TV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AIDS에 감염된 자 -특히 동성연애로- 들이 나와서 친필일것으로 하는 말이 있다. "P.K.S 극장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배웠다" 전혀 동성애적 경향이 없다가 우연히 극장에서 경험으로 동성애에 빠지는 동성애자가 과연 몇 %나 될까?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동성끼리의 섹스에 탐닉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교의 다른 형태'를 알게 된 것이지 그게 동성애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동성애는

이성애와 같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한다. "동성애에 빠져 들게 되어 결코 나오지 못했다. 오늘은 A, 내일은 B라는 사람과..."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행태·가치관의 문제이다. 가령, 일용잡부가 알콜중독에 빠졌다면 세상의 모든 일용잡부는 알콜중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속칭 588에 갔다가 그 맛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성애자는 모두 섹스중독증환자인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교" 그 자체를 탐닉한 것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걸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번지게 한다'는 의미의 확산이라 표현한게 과연 타당한가? 더군다나 '은밀하다'는 수식어까지 사용하면서.....

셋째, 동성애자들의 모임 성격 규명문제이다. 우리의 모임은 이른 바 '다수의 횡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매일같이 그 성향을 숨기기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자신을 이겨나가도록 돕고, 동성애자라면 무조건 섹스에 탐닉해 있고, 정신적으로 비정상이고 또한 AIDS를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릇된 인식을 고쳐 나가고자 함이다.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편견의 벽에 부딪혀 음식에서만 자라는 우리들의 어두운 문화를 좀 더 밝고 건전하게 발전시켜보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이 표현에 의한다면 당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통제 당해야 하는 '불온세력집단'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자로서 같은 남자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고싶은 말이 있다.

첫째, 더 이상 AIDS를 동성애와 무조건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AIDS는 성생활의 난잡함과 관계있는 것이지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

성연애자들은 난잡하다'는 일토당도않는 가설을 내세우고 그 증거(?)로 극장을 예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창녀촌·안마시술소·터키탕이 이성애의 대표적인 모습인가?

어느 사회에서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모임을 형성하는게 당연할 것이다. 같이 있음으로 해서 최소한 사회적 소외감과 이질감만큼은 사라진다. 동성애 문화의 내부에서 '난잡·퇴폐'는 철저하게 '개인'에 달려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이성애·동성애 구별없이 심각한 문제이지 반드시 동성애와 직결시킴은 부당하다.

둘째, 철저한 分類化와 定型化이다.

이성애자 → 건전한 성생활 → 행복한 삶

예외적 난잡한 생활 → 불행한 삶 → AIDS

동성애자 → 난잡한 성생활 → 불행한 삶

AIDS

이와 같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생각은 전혀 없이, 배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보듯, 분류시킨 각각의 집단을 '어느 이리하다'는 식으로 고정시켜 정형화하고 있다. 이른 바 제4부(第四府)라 불리는 언론까지 이 모양으로 편견에 빠져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다.

\*어떤 한 사람의 생활이 그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전에 그 집단을 먼저 직시한 후 그 한 사람의 생활을 평가하라.



친구사이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지, 전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상담전화 : (02) 3141-7942  
상담시간 : 오후 8시 - 11시까지  
상담주소 : 10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 영화

## 동성에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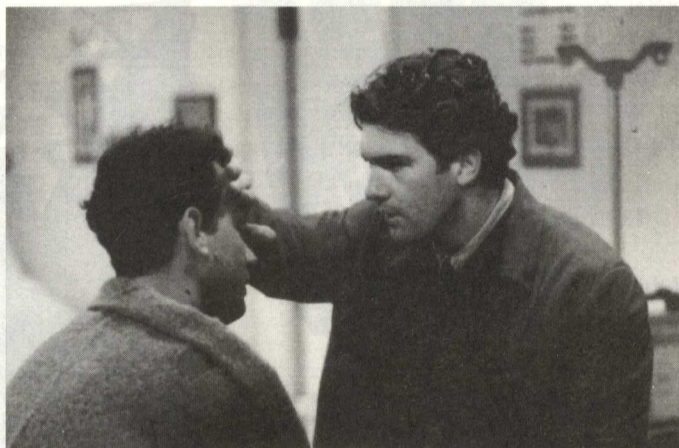
#### 1.

성문화에 관한 한 한국인들은 전통주의의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다. 물론 과부 개가 허옹을 '혁명공약'의 하나로 갖췄던 갑오경장 이후 정확히 1백년이 지나는 동안 이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다. 서구적 민주주의의 내습과 여성의 자아정체성 확립이 그 옷들을 벗겨낸 것이다. 이제 한국인들을 조금 당황케 하는 또 다른 성적 쇼크가 이 전통주의의 옷고름을 잡아당기고 있다. 앞의 성적 쇼크가 근대적 합리주의, 서구 문화의 주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새로운 쇼크는 합리주의의 이단, 서구문화의 비주류를 그 출신성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동성애이고, 그것을 날라오는 것은 식민주의 시대의 범선이 아니라 포스트 식민주의 시대의 영화다. <아이다호> <크라잉게임> <싸베지 나이트> <필라델피아> <M. 버터플라이>, 할리우드와 유럽영화에서 하나의 장르를 형성한 동성애 영화는 지난 2년 사이 한국시장에 그 대표작들을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19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그 효시를 보였고 1960년대 민권운동 시대를 타고서 하나의 가닥을 만들게 된 '게이/레즈비언 영화'들은 그 동안 우리 시장에서 금수(禁輸)품목이었다.

90년대 들어 공연윤리위원회가 적어도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너그러워진 셈이다. 또한 <크라잉 게임>이 관객 20만(서울 개봉관 기준)을, <필라델피아>가 관객 10만을 동원한 것은 관객들 역시 공윤 못지 않게 너그러워졌다는 뜻일 것이다.

이 영화들은 관객들에게 다소 버거운 숙제를 내준다. 문제는 대강 이렇다. '당신도 호모섹슈얼에 대해 어떤 약의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선택인가'. 이런 질문은 관객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가령 청소년, 범죄나 고교생 자살이나 오랜지족이나 운동권학생이나 중년여성의 위기 따위에 대해서라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답론을 준비해두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문제로 취급받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기꺼이 다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성애에 관한 것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화적 이해의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극소수의 문제



영화 <필라델피아>의 한 장면

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사람들이 언급하기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할리우드가 한국시장에 성문화에 관한 이런 신상품을 자꾸 풀어놓고 있고, 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가상의 토론을 요구하며, 또한 아무런 판단기제를 갖고 있지 않은 관객들에게 어떤 종류의 결론들을 떠맡겨 놓는다는 데 있다. 몇몇 영화들이 갖고 있는 미학적 완성도는 그같은 결론들을 거절하지 못하게

썩기를 막는 구실을 한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같은 법정영화를 보고 에이즈에 걸린 동성연애자 톰 헹크스를 편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필라델피아의 법정에서 동성애 쪽에는 자유와 평등의 대의가, 그 반대편에는 편견과 음모가 걸려 있는 마당에.

이 글은 동성애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다시 말해 포스트 식민주의 시대에 판매국과 구매국 사이의 문화적 간극을, 건너오는 새로운 성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적 맥락 속에 번역해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게이영화'들인 <크라잉 게임>과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그리고 <패왕별희>나 <결혼피로연>이 왜 게이영화로 분류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다루려한다.

#### 2

동성연애자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동성애영화'는 아니다. 섹시한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섹스영화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크라잉 게임>과 <필라델피아>는 모두 전형적인 동성애영화다. 동성애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어떤 담론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영화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 <패왕별희>나 <결혼피로연>은 동성애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동성애영화로 분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성애는 <패왕별희>에서 하나의 역사적 상징물로, <결혼피로연>에서는 문화적 상징물로 차용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패왕별희>의 첸 카이커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범람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패왕별희> 같은 영화들이 그러한 현상을 거두고 있다는 책임감은 느끼지 않는가." 필자는 이 질문을 넌센스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패왕별희>에서 동성애는 환락의 밑말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슬픈 역사의 찌꺼기로 그려졌다. 눈먼 역사가 한 선량한 개인의 발 밑에 깔아놓은 운명의 덫과도 같은 그 슬픈 사랑을 어떤 관객이 흉내내고 싶어하겠는가.

첸 카이커는 <패왕별희>에서 역사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192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중국

현대사와 중국 인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 영화를 들여다보면, 우선 북경 경극단 배우들의 개인사가 보이고, 봉건시대 귀족들의 도락거리로 고안된 한 예술장르의 사회사가 보이고, 비약과 반전의 중국 현대사가 보인다.

영화는 북경경극단에서 고전적인 레퍼토리 <패왕별희>의 남녀 주인공 항우와 우희를 연기하는 두 배우의 소년기로부터 시작한다. 문화혁명 이전까지 경극 배우들은 모두 남자

였다. 일종의 고아원인 소년 경극단에 사생아인 미소년 '두지'가 맡겨지고, 두지는 항우의 애첩인 우희역을 배정받는다. 두지는 가혹한 매질과 시련 끝에 배역인 우희의 여성성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 두지는 경극단 속에서 소년으로부터 청년이 되고, 극중의 우희와 현실의 자신 사이에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되고, 극중의 패왕인 '시투'에게 이성애와 동성애가 뒤엉킨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시투가 거리의 여자 '주산'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비극적인 삼각관계의 꼴을 갖춘다. 첸 카이커 감독은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관계를 청초말기-일제강점기-국민당장악기-중국인민민주주의공화국 시대에 차례차례 담금으로써, 주인공들이 봉착해 있는 애증의 질곡과 각각의 시대가 노출하는 구조악을 교차시켜 보여준다. 그는 이중에서도 문혁시기에 대해 가장 혐오감을 드러낸다. 삼각관계가 이를 수밖에 없는 파



영화 <결혼피로연>의 한 장면

탄적인 결말과 문화대혁명 10년의 시련기를 오버랩시킴으로써, 그같은 혐오감은 커다랗게 확장되어 보인다.

적어도 중국현대사가 거처온 각각의 시기에 인민이 겪은 고통과 즐거움을 저울질하는데 첸 카이커의 저울추는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일제 점령기는 일본인 장교를 경극을 아끼는 후원자로 설정해 오히려 국민당이나 인민공화국 시기에 비해 다소 낭만적인 감마저 띠는데, 1937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의 남경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가를 상기하는 관객이라면 이같은 역사적 저울질에 저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를 진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요컨대 <패왕별희>에서 동성애는 중국현대사를 뒤에서 찍어낸 하나의 '음화(陰畵)'다. 다시 말해 동성애는 그 역사의 배설물이었던 셈인데, 사실 그 배설물인 동성애든, 매춘이나 변절이든, 육친간 생이별이든, 팔다리가 잘리는 육체적 고통이든 그건 첸 카이커 감독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인다.

지난 겨울 두 편의 동성애영화로 중국영화 <패왕별희>와 더불어 대만영화 <결혼피로연>이 소개되곤 했지만, 이 역시 어색한 것이었다. <결혼피로연>은 동양과 서양, 타이베이와 뉴욕, 전통과 현대, 구세대와 신세대, 가족주의와 동성애 사이의 대립과 타협에 대한 문화적 보고서이다. 동성애는 뉴욕에 사는 아들과 대만에서 온 아버지 사이를 최대한 벌려놓기 위한, 그리고 그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 같다.

돈 많은 대만 교포 청년 웨이퉁은 동성애인인 미국 청년 싸이먼과 동거한다. 곧 뉴욕에 오겠다는 부모에게 참한 신부감을 보여줘야 하는 웨이퉁은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상해 출신 여류화가 웨이웨이와 연인 행세를 한다. 이들은 뉴욕 시장을 찾아가 목사 앞에서 5분 짜리 약식결혼식으로 위장결혼을 한다. 퇴역장성 출신의 사업가인 신분에 걸맞게 완고해 보이는 그의 부친은 이를 지켜보면서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대만인 친

지가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성대한 중국식 혼피로연을 베풀어준다.

이 결혼피로연을 통해 웨이퉁은 웨이웨이라는 아내, 전통적인 가족제도, 그리고 중국인 것과 타협하게 된다. 그리고 부친은 아들 동성애인, 아들 세대의 문화, 미국적인 것 끼어간기로 한다.

리 양 감독의 이같은 접근은 결국에는, 제적으로 풍요롭고 외교적으로 고립돼가는 만의 정체성 고민에 가 닿는다.

#### 3

<크라잉 게임>이나 <필라델피아>는 동성애영화지만, 이 영화의 감독들이 게이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다른 동성애영화들인 <싸베지 나이트>나 <아이다호>와는 구분된다. 다시 말

<싸베지 나이트> <아이다호>는, 다 비약시켜보면, 서양 영화계에서 만연한 동성애를 형성한 동성애진영에서 성립된 일종의 선전 플릿이다. 이에 비해 <크라잉 게임>나 <필라델피아> 동성애진영 바깥에서 동성애라는 스토리를 빌려 완성한 하나의 휴머니즘 영

들인 셈이다. 북유럽 섬나라의 우울한 과거가 오버랩되는 <크라잉게임>의 원천적인 비장함과는 달리 <필라델피아>는 마치 메이플리워호 사건의 '프런티어-프로테스탄티즘'처럼 활기차게 씩씩하게 말싸움을 걸어온다. '자, 유능한 변호사가 에이즈환자란 이유로 해고된다. 그 총애했던 법률회사의 선배 변호사들은 그 물아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음모집단으로 돌변하고 법정에서는 법의 논리를 기만해 거짓 증거와 인신공격으로 일관한다. 동성애는, 에이즈환자는 왜 자유와 평등이라는 법적 대의에서 제외돼야 하는가. 당신들은 과연 법정에서 자유를 편들겠는가, 억압을 편들겠는가.'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이 '양심 스트'성 질문은 일반인들에게 사투 고압적이고, 준엄하다. 이 영화의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 게다가 골든 글러브, 베를린 영화제, 아카데미영화상의 남우주연상을 휩쓸만한 톰 헹크스의 연기가 일반인들에게 결단을 재촉한다. 그들도 이제 서둘러 동성애나 에이즈에 대한 심리적 방제장치를 허물고, 억눌린 섹스의 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아랑곳 휴머니스트들 뒤에 줄을 서야한다고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영화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잘 짜여지고 그 잘 짜여진 이야기가 한 불운한 연애에 관한 것이어서 관객들에게 슬픔과 감동 준다. 게다가 주인공은 재판에서는 이기지 못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관객에게 연민과 책감을 떠안긴다. 가령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성해방논쟁의 제 1라운드에서 스)등 주요 작품들은 으레 '신여성'들에게 극적 결말을 안기고 관객에게는 죄책감을 김으로써, 작품 속에서는 실패하나 작품 바깥에서는 성공하는 구도를 가졌었다. 이제 21세기 말에 불붙은 성해방논쟁 제2라운드에서 여전히 이런 구도는 설득력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 푸른 편지

## Goodbye I.S

I.S

사진을 무척이나 잘 찍었던 그.  
 그를 통해 나는 내 꿈을 인화하고, 그의 시야에 포착된 세계 모두가 내겐 천국과 같은 영상이었다.  
 꿈같은 봄날, 운명처럼 만나 숙명으로 헤어진 그였다.  
 사고로 숨을 거둔 그날까지도 나는 그를 사랑했다.

### PART 1.

올해 나이 스물여덟. 광고회사 S.에서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지만, 집으로 들어서면 깊은 시름과 우울에 빠져들고 만다.  
 한밤중에 베개를 눈물로 적셔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 말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잠마중에 흥통으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처럼 너에 대한 추억과 상처를 되씹는다.  
 라디오에서 'All the way'가 나올때면 너와 함께 했던 지난 5월의 추억이 화려한 스크린처럼 나의 시야에 펼쳐진다.  
 너의 웃음소리, 맑은 하늘을 보여 주었던 너의 눈빛, 추억할수록 온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픔에 어쩔줄 몰라 하면서도 내심 나는...  
 맞아, 그때 비가 왔었지, 갑자기 만난 폭우로 인해 우린 낙심했지만, 함께 큰 수건을 덮어쓰고 뛰던 기억은 얼마나 신났던가.  
 그래 그토록 행복했던 날들이 또 얼마나 많았던가.  
 아파할 필요가 뭐 있나.

### PART 2.

'내일은 공휴일, 오랫동안 너의 묘지에 가서 잔디라도 만져줘야지.'  
 나는 언제 깊은 우울이 있었냐는 양 말짱해진 아니 선량해진 기분으로 내일 양수리로 떠날 준비를 갖추느라 부지런을 떨었다.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챙기고... 그리고 손수건도 필요할거야... 울지도 모르니까...'  
 순식간에 나의 넓지 않은 방은 형클어진 옷더미로 어지러워졌다.  
 문득 나는 살아있는 너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임에 들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알 수 없는 비참함에 망연자실해졌다.  
 '정신 좀 차려. 분명히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너의 화려한 성장을 봐줄 수 있겠어...'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른 채,  
 나는 아침해가 커튼 틈새로 해벌쭉 웃고 있는 것을 보며 눈을 쫓그렸다.  
 결국 우산도 없이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청량리 역이요."  
 실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냥 맞아도 좋을 듯 했다.  
 청량리역에서 내리니,  
 삼삼오오 짝을 지은 남녀들이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오갔다.  
 양수리역을 향해 달리는 166번 좌석버스 차창으로

어느 새 붉은 빗줄기가 때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푸른 논밭이 보이고,  
 불어난 북한강 줄기가 거대하게 눈에 들어왔다.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너와 함께 했던가.  
 길이 막히면 막히는대로, 너의 차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부르며,  
 저 강물에 또 얼마나 많이 부푼 꿈을 띄어 보냈던가.  
 나는 다시금 주체할 수 없는 봄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만 옷자... 너는 없잖아...

### PART 3

낮익은 양수리역, 주변 상가들이 보였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잡아탔다.  
 "양수리 별장근처, 은행나무 숲 부락합니다."  
 비는 그치고,  
 盛夏의 맑은 햇살이 풀기 머금은 녹음 위로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온 뒤의 정갈한 풍경만큼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택시가 양수리 별장 근처 은행나무 방풍림 곁에다 나를 내려 주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나뭇잎새를 흔들고 지나갔다.  
 나는 눈에 너무도 익었던 은행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다.  
 밖에서 봤을 땐 촘촘한 은행나무에 가려,  
 그 속 역시 울창한 수풀일거라는 예측과 달리,  
 그 안에는 여섯평 남짓한 매우 신비롭고 아늑한 공지가 있었다.  
 나는 난상한 꿈을 떨치듯, 너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지난날의 영상을 애써 떨치며 공지 중앙으로 걸어가다.  
 꽤 두툼한 나무 팻말이 외롭게 꽂혀 있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언제나 널 사랑해"  
 나는 그 팻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원했다.  
 '이제 부디 가줘, 제발 꿈으로 나타나지 말고,  
 나를 버렸던 그 날처럼 영영 내 가슴 속에서도 떠나줘. 추억마저 물어 줘...'  
 어디선가, 멀리서 너의 웃음소리가 새뱃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내가 울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는 웃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감춰 있던 비둘기 한마리가 푸드득 소리를 내며 힘차게 날아가는 걸 난 느꼈다.  
 나는 가볍게 뛰다시피 은행나무 숲을 빠져 나왔다.  
 하늘이 더욱 높아졌다. 자유가 가슴 한 가득 안기는 기분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어느 소설의 끝대목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너를 만나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 그 시절을 견뎌다...」

카피라이터 J.B

친구사이 소식지 "푸른 편지" 난에 실을 편지를 보내주시요.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의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적어서 친구사이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친구사이 학술부에서 통역 자원 봉사요원을 모집합니다.

95년 상· 하반기 국제 학술모임과 아시아 6개국 학술모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대회와 호주 시드니 대회에 참석하셔서 각 나라와 정보교환, 자료분석들을 도와주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어, 일어, 독어 및 기타 언어에 능통하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호출번호) 012-223-3340

## 친구사이 편집부에서 자원봉사자(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친구사이 편집부에서는 매킨토시 또는 일반 PC를 다룰 줄 아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편집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원의 절대부족으로 소식지 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편집디자인 실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 기회에 자신의 힘으로 동성애 사회의 문화를 창조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처) 친구사이 - Tel (02) 3141-7942

그리고...  
나와  
그대의  
감성시대  
TUNNEL  
카페 터널  
Cafe The Tunnel  
(02) 797-2283  
서울 이태원 청화아파트 건너편 (81번, 79번 버스)  
해밀튼호텔  
터널 THE TUNNEL  
크라온 호텔  
청화아파트  
보고동



# 하얀 노트

친구사이 소식지 "하얀 노트" 난에 실을 글을 보내주세요.  
평소에 일기장이나 노트에 적어놓은 수필이나 시 혹은 그림을  
친구사이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哀者의 祈禱

I  
 방탕한 이 몸을 굽어 보지 마소서  
 벌레보다 나약한 모습이  
 아담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황량하고 매마른 거리에 뛰어들어  
 지친 허물에 허덕이며,  
 달콤한 향기 탐하여  
 고소한 소리에 취한 어리석음으로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워버렸기에  
 알 수 없는 흐느낌은 괴로운 시달림이 되어  
 추한 몸부림으로 떨고 있어도  
 굽어 보지 마소서.

II  
 손짓과 흘기는 눈짓에 놀려  
 외톨이 나만이  
 허전하고 짙은 공간에서 떠돕니다.

핏기 어린 상처 감추어도  
 늑막한 슬픔 배어버린 모습은,  
 가눌 수 없는 절망과 배어버린 모습은,  
 허덕임을 재음이  
 이젠 달달은 벼랑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배우는 자,  
 앞에도 모르듯 배움이 무엇인지를  
 흐르는 눈물로 맘 배인 손으로 쌓았어도  
 미운 오리 대하듯 뒷춤에 쭈셔둡니다.

사랑의 眞情함을  
 가짜 온 定原에서만 찾는 우둔을  
 전 따르지 않으렵니다.  
 한 劃으로 그어진 비좁음을  
 배우진 않아도 용서는 하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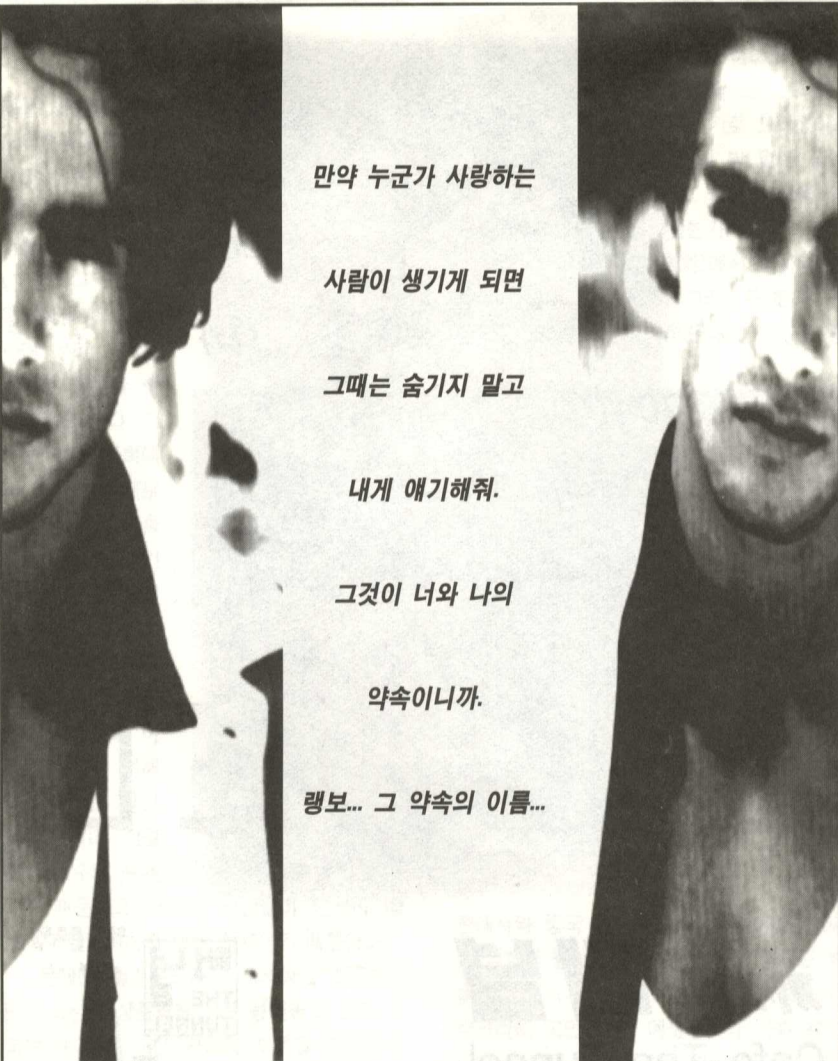
이보다 더 외롭고 슬퍼도  
 참된 이해로 둘러진  
 사랑을 찾을 때까지  
 그대의 발은 매어두는 끈이 없을 겁니다.

III  
 저의 모습을 허락치 않으십니까.  
 그 누구도 아닌  
 동일한 모습을 사랑하는,  
 절 허락치 않으십니까.  
 창조된 만물이건만  
 뜻대로 이루어진 미물이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저와 같은 존재를  
 영영 不認하며 詛呪 하시렵니까.

하나,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합니다.  
 흘렸던 눈물의 배에도  
 지니고 갈 눈물의 억만 배로도  
 식여지지 않는 유향불 지옥을  
 사랑하는 이와 同行이라면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 불투명을 돌아 세우고  
 말라버린 이해의 認識에서 기쁨이 되어  
 하나로 용화된 순수가 태어난다면  
 후회아닌 自處를 택하렵니다.

서럽게 지나가는 모습에서도  
 탐스러이 피어나는 香氣에  
 살라 태운 영혼의 간절함을  
 非愛라 침묵으로 돌리렵니까.



만약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숨기지 말고

내게 얘기해줘.

그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랭보... 그 약속의 이름...

서울 낙원동 온달면옥 골목 (지하철 종로3구역)

주간영업 : 오후 2시부터 ~

CAFE "랭보" (02) 766-7158

##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친구사이 소식지의 미팅, 펜팔 코너입니다.  
 참다운 만남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편지를 통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마음에 드시는 상대가 있다면 친구사이로 '징검다리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1.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고 약간 큰 키에 외모는 준수한 편입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유모어 감각이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보통키에 깨끗한 인상의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분을 원합니다. 미술 또는 음악 등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2. 30대 중반에 독신, 키는 174cm, 몸무게 83kg, AIDS 음성이며 바(업소)를 싫어하며 집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담배는 피지않고 책임감있는 사람입니다. 취미는 여행, 대화, 음악감상, 영화감상, 운동입니다. 원하는 분으로는 30-40세 사이의 키가 174cm이상으로 날씬하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실히 생각할 줄 알며 성실한 싱글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를 자주 올 수 있거나 혹은 머무를 수 있는 분을 친구로 하고 싶군요. (미국에서 J)

3. 저는 25세이고 나이보다는 어려보입니다. 170센티미터의 키에 65키로그램의 몸무게고 여행과 영화감상을 좋아하며 농구,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원만하고 활발하며 밝은 성격입니다. 담배는 전혀 안하고 소주 1병 반 정도의 주량입니다. 원하는 상대방은 30세에서 40세 사이의 분으로서 키는 170이상이고, 체중은 약간 통통한 그러면서도 근육질인 분을 원합니다. 형같이 포근하고 다정히 지내실 분이면 좋겠고 유머감각이 풍부하신 분이 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화니>

4. 저는 174의 키에 몸무게는 64입니다. 나이는 29세이고,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잡시의 스펀지는 사람이 아닌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며 외로움을 녹여줄 수 있는 친구로 언제까지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네요. 저는 깔끔한 용모고 저보다는 좀작고 나이는 저랑 비슷한 대구분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같이 집을 합쳐서 살고 싶으나 마음도 드는군요.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분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합니다.



수필

슬픈사랑 얘기 하나 해 줄까?

필로로그

이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고통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이미 이별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면 그저 조용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멍드는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알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이별만이 선사할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이라는 것을 ...

내사랑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시절. 성(性)적 주체성에 대한 판단부족이라고 여겼고 내가 어딘가 모자라다는 생각 속에 늘 혼자 갈등하고 내 안의 나와 싸워야만 했던 시절.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나이. 사춘기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몹시도 그림던 때. 나의 학창시절은 언제나 우울했다. 남보다 더 많은 고민속에 살아가야 했고 혼란속을 나 스스로 헤쳐나와야만 했다. 늘 이런 나를 원망하고 때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갈등에 한참을 시달리고 있을 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던 사람이 있었다. 날 바르게 일으켜 세워 준 사람. 내 고민과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던 사람. 언제나 같은 눈

빛으로 날 지켜봐주던 사람. 그렇게 그리웠던 사람이 바로 내 곁에 머무른 것이다.

처음엔 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여성스러운 성향과 남자에게 관심있는 마음. 남들과 다른 모든 것을 난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를 멀리했다. 그럴 수 밖에 없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난 나대로 힘겨웠고 그는 그 나름대로 안타까워 했고 속상해 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 수록 그에게 끌리게 되었고 그는 아주 편안하게 날 대해주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이 있었다. 그가 보낸 수백통의 편지와 수천통의 전화. 그리고 수많은 선물이 난 언제나 고마웠고 너무나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잠들기 전 들려주던 슬픈 동화 이야기와 조용히 깨어주기 위해 들려주던 Barry Manilow의 Ships. 내가 아플 때 기도하던 두 손과 보고싶다며 새벽에 우리집으로 달려오던 일. 우리는 때로는 순수했고 때로는 격정적이었다. 그는 이 세상 단 하나의 로맨티스트였고 사랑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이해하려고 소유욕을 버리며 무던히 애쓰던 사람이었다. 날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지켜주던 것이 오히려 문제될 때도 있었다. 언제나 만나면 한결 같았고 쉽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어깨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와 있을 때 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같이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이 세상 어느 연인들보다 애절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했고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믿었다.

아주 당연하게 여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같진 않았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간신히 비껴갔을 뿐 한 번도 넘지 못한 탓에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지고 힘겨워졌다.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무시될 수도 없었고 그럴수록 더 거세게 우리를 조여 왔다. 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지치고 힘든 나머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금방 풀리긴 했지만 가슴 속 깊이 깔린 앙금은 아무도 해결해 낼 수 없는 문제였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고 외진 곳으로 달아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모두 약속에 그칠 뿐이었고 그때 현실에 너무나 걸맞지 않는 생각들이었다. 대학을 가야했고 사회 생활도 해야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금이 가고 서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다시 메꿀 용기도 그 무엇도 없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는 항상 만났던 그 벤처에서 조용히 이별을 받아들였다. 추한 모습도 없이 격렬한 다툼도 없이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난 나의 마지막 연인. 여지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지금은 널 알게된 것을 후회한다고. 그는 내게 이 말만을 남기고 씩씩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몸은 얼어붙어 차가웠지만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다.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픈 이별. 그래서 난 지금도 겨울을 싫어한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가슴 저미는 일인지 모른다. 그냥 아름답게만 느낄 뿐이지.

나의 사랑은 신기루였지만 언젠간 잡히는 신기루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난 느낄 수 있다. 그 역시 나만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아직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이대로 끝이라면 우린 만나지 말아야했다.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가 다시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우리는 만나게 되고 다시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헤어지는 일은 죽어도 죽어도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난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그를 맞을 준비를...

에필로그

우리는 같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랑도 같아야 한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듯. 한 남자를 지극히 그리워하듯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 육체의 탐닉만이 사리의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 앞서야 할 감정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

우리는 같다. 사랑도 같다.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FROM Page

알고지내십시오.

전국 AIDS 상담기관/검사기관 전화번호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

02-380-1696~8

한국 AIDS 연맹

02-747-4070~2

한국건강관리협회

- 서울 02-604-7007
- 부산 051-553-6611
- 대구 053-754-0203
- 인천 032-884-0330
- 경기 0331-44-8228
- 강원 0361-51-4400
- 충북 0431-233-1100
- 충남 042-523-0660
- 전북 0652-75-0020
- 전남 062-363-4040
- 경북 053-953-0313
- 경남 0551-42-0066
- 제주 064-47-1121

기타 각 보건소

전국 각 국립검역소

- 서울 02-664-9401~4
- 부산 051-463-3501~2
- 인천 032-883-7502~3
- 군산 0654-445-4239
- 목포 0631-44-0941
- 여수 0662-62-2367
- 충무 0557-645-3597
- 마산 0551-46-2443
- 김해 051-973-1922
- 울산 0522-61-7092
- 포항 0562-47-2713
- 동해 0394-522-5952
- 제주 064-58-3859

이 빈 공간은 여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수필, 시, 감상문, 동성에 학술자료 또는  
 삶에 지쳐 절로 나오는 한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사이는 몇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자들만에 의해  
 운영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 속의 공허와 같은 이 공간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며...

친구사이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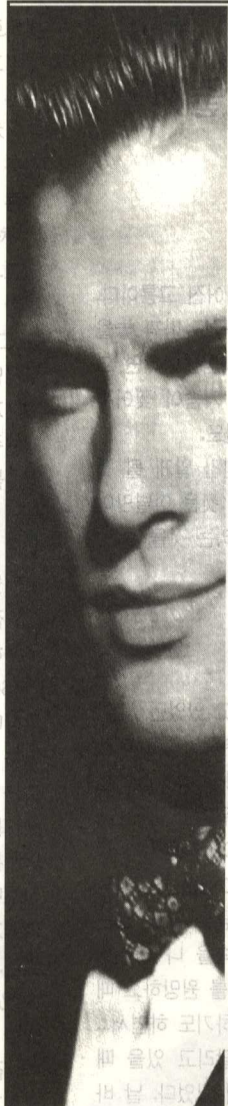


업소 탐방

# BAR FOR NEW AFRICA

종로라는 이름의 지목을 가진 곳의 이미지는 늘 젊다. 분망하다로 대변되곤 한다. 카페 「아프리카」는 종로에 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망중정이랄까, 「아프리카」는 종로의 분망함에서 살짝 등을 돌리고 있다. 비원 앞에서 종로3가 쪽으로 2-3분 걸어내려오면 순백의 판자에 오염없는 아프리카의 하늘처럼 푸른 고딕체 간판이 수줍은 나이지리아 처녀의 미소처럼 당신을 반긴다. 어깨를 스칠 듯 좁은 나무 층층대를 내려오면 이웃 만두가게 청년같이 맘씨 좋은 주인이 얇은 미소를 머금은채 반기는데 실내는 아프리카의 고즈넉함, 차분함, 아늑함을 웅변하듯 은룡 하얀색이다. 게다가 당신 심장의 박동수와 비트가 얹은 재즈의 선율이 하루종일 시처럼 흐르고 있다. 「아프리카」에 들어서면 순간 폐부까지 파고드는 느낌은 참신함이다. 그러나 새롭되 결코 낯설지 않다. 오늘밤, 당신이 몹시 외로울 때 아프리카의 문을 밀면 바오밥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프록 코트 입은 어린왕자와 경비행기를 타고온 메릴 스트림과 로버트 레드포드를 만날지도 모른다.

문득 이 순간 「아프리카」의 커피 내음이 그림다.



바오밥 나무 그늘 아래

경비행기를 타고온

메릴과 로버트의 꿈이

재즈 선율 속에

녹아드는 곳

카페문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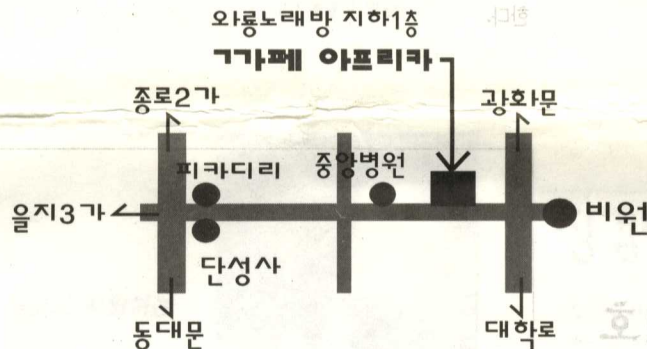
Something New

## AFRICA

PM 100 - PM 1200  
비원에서  
종로3가쪽으로,  
와룡노래방 지하

(02)3672-4249

카페  
**아프리카**



친구사이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매번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실 수 있는 뜻있는 분을 찾습니다. 친구사이로 연락바랍니다.

### 친구사이 전화번호는 (02) 3141-7942입니다.

전화를 통한 고민 상담, 에이즈 상담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토, 일요일은 3시부터)

**친구사이 주소는 (우)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입니다.**  
**많은 전화, 많은 편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친구사이

친구사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좋거나 혹은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어학실력이 좋은 분들 중에 동성애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싶으신 분이면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밝은 동성애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 마무리...

###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며...

친구사이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친구사이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식지 친구사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0여곳의 업소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서울의 극장가, 대학로 등지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성경향(性傾向)으로 고민하는 문의 및 상담전화가가 걸려오고 있으며, 친구사이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뜻을 펼치기 위한 최소 필요적 경비는 아직도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으로 지拂되고 있습니다. 이에 친구사이는 소식지 '친구사이'의 지속적 발간과 여러가지 활동(영화의 밤, 체육대회, 기타 인권지 및 동성애 수기 발간 등)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액 : 1000원 ~ 무한대  
계좌번호 : 국민은행 094-01-0245-154  
친구사이 앞

\* 은행송금이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곤란하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 10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친구사이 앞

(후원자분께는 친구사이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고  
원하시는 장소로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미팅, 펜팔